

전남 닥터헬기, 신안 압해 계류장 준공

‘날아다니는 응급실’ 18종 의료장비 갖춰

의료 환경 열악 272개 유인도 주민들 수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계류장을 신안 압해읍으로 옮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남도는 22일 신안 압해읍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 박경곤 신안부군수,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준공식을 가졌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은 지난 1월 착공, 18억 원을 들여 연면적 822.42㎡에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다. 운항통제실을 비롯해 이착륙장, 격납고,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닥터헬기를 도입해 운항하고 있으며, 2017년 중형 닥터헬기로 교체해 안전성을 높이고 출동 범위를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에는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인공호흡기·자동 흉부 압박장치 등 18종의 의료장비가 있다.

현장 출동 시 조종사·의사·응급구조사, 총 4명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목포 옥암지구 수변공원에서 운항해왔다.

지금까지 닥터헬기 운항으로 180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272개 유인도에서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별 수혜자는 신안 1219명(66.3%), 안도 328명(17.8%), 진도 240명(13.1%) 등이다.

박병호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고 이송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보건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상인 보금자리 변신

광주 동구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일환으로 창업한 점포 7 곳을 대상으로 인증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지난 3월 참여자를 공개모집해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입점을 비롯해 연간 임차료, 인테리어·상품개발비용 등을 지원했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소한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무·경영·창업·법률 등 관련 분야 2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경영서비스를 제공했다.

서구, 커뮤니케어 18개동 순회 방문진료 시범운영

광주 서구가 매주 수요일 의사 진료가 필요한 거동불편 세대에 가정방문하여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케어) 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방문진료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18개동 맞춤형복지담당자와 서구 보건소가 연계 추진하는 것.

동 순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18개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커뮤니티케어사업 대상자를 사전 발굴하고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로 시작된다.

조사 이후에는 의사진료 필요자를 서구보건소에 의뢰하고 의사(보건소장)와 방문간호사, 동 담당(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한다.

남구, 폭염으로 달궈진 도심 살수차로 꺾는다

광주 남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9월말까지 두달간 폭염특보 발효시 평별로 달궈진 도심의 더위를 꺾기 위해 살수차가 본격 운행된다.

살수차가 운행되는 코스는 주요 간선도로인 내남대로와 서문대로, 독립로, 화산로 등 4곳의 도로를 비롯해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등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는 군본로 및 봉선중로로 일대 도로이다.

이 기간 투입되는 살수차는 총 2대이며, 각 차량별로 하루 평균 5회 정도 시가지 도로 중심으로 살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북구, 주민건강지킴이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광주 북구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북구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북구는 “오는 25일 2019년 신규 국민체력인증센터”로 선정된 북구태봉생활체육관에서 체육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국민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갖고 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체력인증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국민들에 대한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정부사업으로 북구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신규 인증센터로 선정됐다.

이에 북구는 올해 12월까지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총 1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와 체력측정 장비 일체를 지원받게 됐으며 신안동에 위치한 북구태봉생활체육관을 증축해 인증 구역에 충족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모집 등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광산구, 광산문화예회관서 타악공연 개최

광주 광산구가 광산문화예회관에서 26-28일 타악 공연 ‘인수화풍(人水火風)’을 개최한다.

‘인수화풍’은 한국 고유의 신명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한 작품으로 불·불·바람의 원초적 소재로 화려한 볼거리와 가슴 뛰는 연주를 선사하는 공연.

특히, 이번 공연은 우리지역 대표 예술단체인 ‘전문문화연구회 얼쑤’와 서울 등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아티스트 박윤규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대형 발광 다이오드(LED) 화면에 최소화한 조명과 무대는 이전 ‘인수화풍’과는 다른 화려함을 선사할 예정. 공연 관람료는 3,000원이고, 광산문화예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4장을 구매하면 1만원으로 할인해주는 ‘만원의 만찬’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공연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833)에서 한다.

“끝까지하고 실패해도” 장휘국 교육감의 뼈있는 당부

“믿고 참고 위로와 격려 보내는 게 중요”



지난 16일 사상 첫 한국 여자수구 대표팀이 수구강국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역사적인 첫골을 넣자 단체 응원을 나온 광주지역 학생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하고 있는 모습.

“실수하고 실패하고, 비록 끝까지 하더라도 믿음과 위로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수영대회를 통해 배운 교육적 가르침을 페이스북과 간담회의를 통해 연거푸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22일 확대간담회에서 “수구 여자대표팀이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30대 1로 저 어찌보면 창피한 일일 수 있지만 첫 골을 넣었을 때는 마치 이긴 것처럼 모든 관중

이 열싸안으며 울며 환호하며 열렬히 응원하는 걸 보고 ‘끝까지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응원을 보내는구나, 그래서 아이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수구 여자대표팀은 헝가리와의 첫 경기에서는 0대 64로 졌고, 러시아와의 2차전에서도 1대 30으로 패했다.

이어 캐나다전 2대 22, 남아프리카공화국전 3대 26 패배에 이어 이날 순위결정을 위한 최종전에서 쿠

바에 0대 30으로 패하면서 최하위인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대회 개막 후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장을 찾아 단체응원을 펼친 장 교육감은 “첫 골을 넣고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는지, 그 뒤로는 한 경기에서 3골도 넣었다”며 “1등이 아니면 실패도 여기고, 2등, 3등이 고개를 못 드는 사회를 뒤로 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심을 갖도록 교육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이빙 경기에서도 만렙인 실수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난이도 기술로 고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아티스틱 선수들의 도전한 자존감과 당당함도 배울 점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실수나 실패,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노력하고 도전하도록 믿고 참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로 말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지금 우리 교육이 실수나 실패, 꾸지람이나 뒷담화만 두려워 눈치나 슬슬보며 공부니를 빼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부디 학부모와 어른들의 믿음과 위로 격려를 믿고 자라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내버스 여름방학 기간 12% 감축 운행

광주시는 22일 여름방학을 맞아 24일부터 8월18일까지 시내버스를 감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름방학 기간 에너지절약 등을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평일 기준 62개 노선에 123대(12%)를 줄여 운행할 방침이다.

배차 간격은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의 경우 1~10분, 지선노선은 5~15분 정도 평소보다 늘어난다. 광주시내버스 감차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지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상속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년 단 56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정순기 (410320-1581518)
최 후 주 소 : 순천시 생목안길 15(생목동)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순천시 지전동 274

위 망 정순기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7월 23일

공 고 인 : 정유미.
주 소 : 순천시 안산길 50, 102동 501호(연향동, 코아루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7월 11일
공고기간 : 2019년 7월23일부터 2019년 9월 23일까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원님에는 노사민정 시책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까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신제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관동맹정책결집위원회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